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현초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광양 해피데이’ 시민들 소통 창구 역할 ‘톡톡’

올해 77건 접수·예산 확보 등 민원해결 빠르게 대처

광양시가 소통·공감 시책으로 추진 중인 ‘광양 해피데이’가 지난 18일을 끝으로 올 한해의 운영을 마무리했다.

‘광양 해피데이’는 그동안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대판 신문’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2014년 9월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1,535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826건의 다양한 민원사항과 시장발전 제안사항의 건의가 이

뤄지는 등 대표적인 소통시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화물 상하차 지연문제 개선 건의,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유치원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요청, 마동근린공원 내 반려견 전용놀이터 설치 건의,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 요청, 도심지역 주차장 조성 요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시는 이 중 55건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거나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해피데이를 꾸준히 운영해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 해피데이’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시정발전방안, 불편·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민과 소통의 날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광양시청 2층 시민접견실에서 열리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쾌적한 마을 만들기 나서

내년 1월까지 시·발등 방치된 폐기물 집중 처리



광양시는 쾌적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19년 1월까지 농촌지역에 방치돼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에서 마을단위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

등으로 처리해 왔으나 농가의 수거배출실적이 저조하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자발적 수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논, 밭, 마을공동터, 아산 등에 방치·적치되어 있는

폐비닐, 빈농약병 등이 여름철 병해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마을의 환경과 경관을 해치고 있어 수거·처리가 절실했다.

이에, 시는 사업비 1억6천5백만 원을 투입해 각 읍면별로 10~15명씩 총 80여 명의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 처리반은 농촌지역의 논, 밭, 마을공동터, 아산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빈농약병,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대대적으로 집중 수거하고 있다.

조병준 농촌개발팀장은 “이번 농촌지역의 영농 폐기물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폐농약제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방지와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성군은 전국 326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지자체 243, 중앙 28, 공공기관 55)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표창과 함께 선제적인

재난대피체계 확립을 위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폭염 피해 최소화 활동, 기관장의 재해우려지역 사전예찰 추진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개인역량, 재난관리 부서역량,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기관장 리더십 등 41개 지표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과 민간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그동안 추진한 우수한 재난관리 시책들이 결실을 맺어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군, 빅데이터 활용한 스마트 행정 구현

함평군이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지방세 체납 징수에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 행정 구현에 본격 나선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신용정보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행정안전부 표준분석모델을 통한 회수등급과 회수모형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정보와 신용

정보를 융합·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질 체납자 판단 및 회수등급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회수등급이 높은 체납자에게는 문자 안내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회수등급이 낮은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하며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빅데이터 분석과제 선정을 위한 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협업사업부터 주요시책, 생활불편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 기자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오늘 개소

순천 아랫장 곡물창고에 창작자 위한 공간 구성 및 장비 갖춰

관광과 생태리는 핵심테마를 남도에술로 연결하고 지역콘텐츠 창작자들의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창작 공간이 순천 아랫장에 문을 연다.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일 순천 아랫장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자리잡은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이 개소식을 개최한다.

‘전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포로그램 운영, 장비 및 시설제공 등 폭넓은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 창작자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이번 개소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순천시 관계자와 지역 창작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축하공연, 비전선포식, 시설투어 등으로 진행되며, 개소식에 이어 KBS 서수민 프로듀서와 함께하는 실례

학콘서트도 진행된다.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은 지역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아카데미, 컨설팅, 사업화지원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누구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은 1층에는 ▲크로마키스튜디오(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공간) ▲메이커스페이스(3D프린터, 목공 창작 공간) ▲스마트폰오피스(개방형 비즈니스 지원 공간)로 구성되었고, 2층에는 ▲테크랩(드론, SW 교육공간) ▲루키존(기업 입주실) ▲코워킹스페이스(아이디어 공유 및 협업 공간) 등 지역 창작자에게 힘을 더할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군, 펜션·민박시설

긴급 특별안전점검 실시

영광군은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19일부터 2일간 관내 펜션과 민박시설 90개소에 대해 영광소방서와 합동으로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우리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김준성 군수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분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안전관리 책임교육 이수 여부,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여부,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위험시설 접근통제·건물 균열·가스점검·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총력

순천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5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특히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하기 위하여 매년 관련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다.

그 동안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조세 개정 등을 통해 중량 제한을 없애고 2005년 이전 제작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

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하며, 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비 지원사업도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황경석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총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